

“가난 대물림 반드시 끊어 놓겠다”

■ 이명박 후보 광주 방문 이모저모

(4면서 계속)

— 범여권에서는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서민을 위한 경제보다는 부자를 위한 경제 정책을 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비판을 위한 비판이며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온 국민의 고된 지지로 뽑힌 대통령이 굳이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을 위한 경제 정책을 펼 이유가 어디에 있다. 오히려 넉넉하지 못하거나 형편이 어려운 서민을 좀 더 잘 살게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닌가. 경제를 살려서 일자리가 늘어나면 누가 혜택을 보는가. 바로 서민들 아닌가.

저 자신이 너무 어렵게 자랐기 때문에 서민의 애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 무엇보다 가난의 대물림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말로는 서민을 위한다며 서민을 더 지치게 하고, 빈부격차도 더 늘려놓은 게 바로 현 정부 아닌가. 5년 전에도 같은 구호로 국민의 눈을 속인 사람들이 이제 와서는 그동안의 국정실적을 숨기기 위해 편가르기 식의 말을 되풀이하고 있다. 우리 국민은 더 이상 이 같은 선동적인 말에 현혹되지 않을 것이다.

— 이 후보는 ‘잃어버린 10년’이라며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를 비판했다. 두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평가한다면.

▲김대중 전 대통령의 IMF 외환위기 극복 노력과 과감한 공공부문 구조조정 시도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또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나름의 노력도 평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기업 구조조정을 지나치게 인위적으로 한 것이나, 공적 자금의 집행을 둘러싸고 잡음이 많았던 것, 남북한 문제를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 등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주변 측근들과 아들 문제로 국민을 실망시킨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아직 임기가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여서 뭐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서민을 위한다면서 정부가 빈곤층을 더 많이 만들어내고, 양극화를 심화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다 국가 부채를 위험 수위에 올려놓은 것에 세금도 많이 걷는 점에 비추면 나라 살림을 제대로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울러 좌·우파 이념 논쟁 등 통합보다는 사회적 갈등을 확산시킨 것도 잘못된 것이다.

— 2007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평가한다면.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그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현안인 북한 핵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했어야 했는데 그런 게 없었던 게 굉장히 아쉽다.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진정한 개혁과 개방을 해야 진정한 평화가 가능하다. 엄청난 남북경협과 대북 투자를 약속했는데



빈부격차 더 늘려놓은 게 바로 현 정부 저소득층·낙후지역 교육지원 대폭 강화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선언적 합의에 머문 것 같다. 그리고 남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확실히 매듭지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대단히 아쉽다.

—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면담이 무산되면서 ‘사대주의 외교’라는 비판을 받았다.

▲미국 뿐 아니라 러시아, 중국, 일본 등 동북아 국가의 지도자를 누구와도 만나 교분을 쌓고 서로의 실리를 위해 협력할 의향을 갖고 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애당초 미국을 방문하려 했던 기본 취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점이다. 먼저 미국 대통령만 만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미국 방문 자체가 선거를 의식한 정략적인 것도 아니었다.

— 노조에 강경한 입장을 가졌다고 알려졌는데.

▲노조에 대해 강경한 입장이라는 시각은 잘못된 것이다. 노사가 화합하는 게 생산성과 경제성을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노사 분쟁은 가능하면 노사 스스로 해결하는 게 옳다고 본다. 사실 중소기업에 있는 생계형 노조의 경우 법적 지원을 떠나 적절히 보호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고임금을 받는 일부 대기업 노조가 지나치게 정치성을 띄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

일부 강성 노조 때문에 생산성 저하는 물론 기업의 투자욕을 꺾거나, 외국기업이 국내에 들어오는 것을 꺼려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다. 노사 어느 쪽이든 잘못된 것은 법으로 다스려야 하는 게 순리다. 그러나 기업이 먼저 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이 일차 수

리다.

— 이 후보의 5대 교육정책이 ‘3불 정책’을 사실상 폐기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특히 이 후보의 교육정책이 일부 상류층 중심이라는 비판도 있다.

▲내 교육정책의 핵심은 좋은 학교를 많이 만들어서 모든 사람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특히 저소득층과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려고 한다. 이미 여러 차례 말했듯이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다.

지금의 교육정책은 평준화라는 이름 아래 실제로는 가난한 가정의 학생들을 방치하고 있다. 공교육이 부실하게 되고 사교육이 판을 치게 되면 서민계층이 큰 피해를 보게 된다. 지금 이대로 교육을 방치할 수 없다. 교육을 확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단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고 끌어 올리겠다 것이 제 생각이다. ‘특정계층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은 근거 없는 정치공세다. 학생시절 학비 걱정 없이 공부 한 마음껏 해보는 것이 소원이었다. 내가 오늘의 위치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모두 교육 덕분이었다. 과거나 지금이나 교육이 희망이고 미래다. /정리=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인터뷰 분위기는

여유있는 모습 자신 넘쳐
까다로운 질문에도 웃음

지난 21일 오후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도착한 광주공항에는 이 후보를 환영하기 위해 나온 지지자와 한나라당 당직자 등 200여명이 몰려 북적거렸다. 공항 귀빈주차장은 고급 승용차들로 가득 메워졌다.

이 후보는 지지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환영식에 응한 뒤 곧바로 귀빈실로 들어와 분사 취재진과 인사를 나눴다.

진한 회색 정장에 빨간색 넥타이를 맨 이 후보는 50% 내외의 지지율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후보답게 인터뷰 내내 여유있는 모습이였다. BBK 김영준씨 귀국 문제나 서울 시장 시절 호남 출신 간부 처벌 등 까다로운 질문에도 웃음을 잃지 않았다.

이 후보는 특히 호남고속철도 등 호남지역의 인프라 구축과 호남발전 구상에 대해 강한 어조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취재진의 질문이 떨어지는 순간 즉각 답변하는 순발력을 보여주었으며, 답변을 회피하거나 말을 돌리지도 않았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가 22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국민성공 대장정 광주·전남대회’를 마친 뒤 식후 행사로 열린 ‘희망나무 성공메시지 달기’에 참여하고 있다. /위탁기자 jrwi@kwangju.co.kr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는 22일 첫 번째 지역순회 필승결의대회인 ‘국민성공 대장정 광주·전남대회’와 중앙선대위 회의 등을 광주에서 갖는 등 본격적인 호남 공약을 통해 세군하기를 꾀했다.

이 후보는 특히 지역인프라 구축과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5·18단체 대표들과 만나 ‘광주사태’ 발언에 대해 사과하는 등 호남 민심 끌어안기를 시도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와 5·18 단

라당이 잘 하지 못했으나 최근 진정성을 갖고 열심히 해오다 보니 호남지역도 많이 달라진 것 같다.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후보는 “5·18 사태’ 발언 등에서 보듯 광주시민들은 이 후보의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는 정수만 회장의 질문에 “말 실수였다. 어쨌든 표현이 그렇게 돼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서울시장 시절 호남 출신을 소외시켰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서 “현대그룹에

5·18단체 만나 ‘광주사태’ 발언 사과

“문화와 비즈니스 결합돼야”... 여수 세계박람회 지원 약속도

체 대표 면담에서 “광주·전남도 이제 민주화시대를 뛰어넘어 국가 번영과 호남 번영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것이 5·18 정신을 받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아침 5·18 묘역에서 지나간 여수였던 세월을 되돌아보면서 밝은 미래를 만드는 것이 희생된 분들에 대한 보답이 아닌가 생각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또 “광주는 민주화 성지이고, 호남은 민주화의 총본산”이라며 “그러나 과거 산업화에서 다소 희생됐다. 우리가 호남지역을 경제적으로 보다 발전시키고, 호남인의 삶의 질을 높임으로써 진정성을 인정받고, 우리가 바라는 온전한 대통령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강재섭 대표 등과 함께 광주·5·18기념문화관 내 5·18기념재단을 방문해 이홍길 이사장과 이광우 전 이사장, 강신석 목사, 정수만 5·18민주유공자 유족회 회장 등과 간담을 나눴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예전에는 한나

있을 때 4명의 부사장을 뽑는데 3명이 광주 출신이었다. 지역을 떠나 가장 적합한 사람을 뽑을 뿐이다. 지역에 대한 편견은 없으니 안심하셔도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앞서 광주·전남경영자총협회 초청간담회에서는 “문화는 단순한 문화가 아닌 콘텐츠 산업이 돼야 하며 문화와 비즈니스가 결합돼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광주문화수도 사업의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이어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성공 대장정 광주·전남대회’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중앙 및 지방선대위원장, 선대위 고위당직자를 비롯 광주·전남 곳곳에서 1천500여명의 당원 및 지지자들이 참가, ‘17대 대선 필승’의 결의를 다졌다.

이 후보는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홍보관을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뒤 상경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까다로운 토끼씨가 선택한
세기보청기
난청해결전문가 세기보청기
미세한 소리와 높이지 않는 강판디자인 기술로 모든 난청을 치료합니다.
3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dogstar.co.kr
1588-8499 | 080-222-0100